

“방과후에 친구들과 놀면서 공부해요”

장성 중앙초 늘봄학교 가보니

전남 교육부 늘봄학교 시범 운영 초1·2 대상 에듀케어 선도적 준비 오후 7시까지 돌봄... 특수교육도 도교육청·학교 등 협업 적극 활용



지난 20일 장성 중앙초등학교 수성반에서 늘봄수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1·2학년 16명이 오카리나 수업을 듣고 있다. 송민섭 기자

“땀-다땀-다비행기~”
지난 20일 찾은 장성 중앙초등학교 수성반. 1학년과 2학년 학생 10여명이 모인 이곳에서는 오카리나 악기를 다루는 수업이 한창이다. 이제 막 학교 생활을 시작한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휘에 맞춰 오카리나를 불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정규수업이 끝나고 방과후수업이 진행됐을 시간이지만, 학생들은 교사리같은 손으로 오카리나 구멍을 막았다 떼면서 동요 ‘땀다땀다비행기’ 연주에 여념이 없었다.

“빠~” 오카리나에서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흘러나왔다. 악기 사용이 서툴러 아직 한곡을 완주하기 힘들지만, 아이들은 그저 즐거움의 얼굴에 웃음꽃이 한가득 피어났다.

1학년 장예원(8)양은 “오늘은 방과 후 수업 중에 가장 좋아하는 오카리나를 배운다. 아직 잘 못해도 재밌어서 매일 불고

있다”며 “집에서는 오카리나 대신 피리를 불고 있다. ‘땀다땀다비행기’를 다 연주하고싶다. 수업이 끝나도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장성 중앙초는 올해 ‘2023 전남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돼 지난주부터 에듀케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늘봄학교는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합친 개념으로, 희망 초등학교

생들에게 정규수업 후 양질의 교육·돌봄(EduCare)을 제공한다.

교육부 지침에는 초등학교 1학년이 늘봄교실 대상이지만, 장성 중앙초는 2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들 중 일부는 학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한다.

장성 중앙초는 이르면 4월부터 늘봄학

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해 특수교육 대상자를 포함한 참여 희망 학생 모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오후 4시반까지 운영되지만, 희망자에 한해 오후 7시까지 저녁돌봄교실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철호 장성 중앙초 교감은 “늘봄학교 시범운영 학교로 지정된 직후 기간제교사를 지원하는 등 타 시범학교에 비해 선제

적으로 준비했다”며 “기존 돌봄은 돌봄전담사 주도하에 하루 1개씩 특별활동강좌가 열렸는데, 늘봄학교 에듀케어는 자원봉사자가 매 시간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장성 중앙초는 학생 수요조사를 통해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되는 만큼, 에듀케어 전용실 확대 등 시설 여건 개선 문제는 늘봄학교의 과제로 지적됐다. 장성 중앙초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전남 교육청과의 협업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예산 부족 등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바로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철호 장성 중앙초 교감은 “발빠른 인력 충원 덕에 순조롭게 사업이 시작돼 맞벌이 가정의 돌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 부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성중앙초의 늘봄교실이 잘 정착돼 지역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용 장성 중앙초 교장은 “시범운영 학교로 선정된 만큼 기대감과 부담감이 있다”며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최선을 다해 향후 도교육청 정책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양기람·송민섭 기자

술취해 식당서 행패·기물파손 50대 구속

출소 한 달 만에 동종 범죄

출소한 지 얼마되지 않았는데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은 21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면서 집기류를 부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로 A(55)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4시간 가량 행패를 부리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식당을 찾아온 다른 손님의 자전거를 발로 차고 접시 등을 수

차려 부서며 욕설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지난달 동중전과로 출소에 누범기간 중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폭력성과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이날 송치했다.

정성현 기자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광주·전남 작년 KTX 이용객 수 코로나 이전 회복

하루 광주송정 1만1444명
순천 4834명·목포 4235명

광주·전남 지역 KTX 이용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연구원 21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광주·전남’ 이슈 &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지역 KTX정차역 하루 평균 이용객은 광주송정역 1만1444명, 순천역 4834명, 목포역 4235명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원년인 2020년에는 광주·전남 대다수 역의 이용객수가 2019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고, 특히 하루 평균 이용객

수는 1000명 이상인 역을 기준으로 적게는 28.5%(여천역), 많게는 40.2%(여수엑스포역)까지 하락했다.

이용객 수는 2021년부터 소폭 상승했고, 지난해에는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대비 2022년 하루 평균 이용객은 광주송정역이 3327명에서 1만1444명으로 8117명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증가율은 나주역(428명→1905명)이 345.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용객 증가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으로는 KTX 전라·호남선(2015년)과 SRT(2016년) 개통을 들 수 있고, 광주송정역의 경우 2016년 광주역의 기능 이

전으로 광주·전남의 철도 허브 역할을 담당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순천역과 여수엑스포역 등은 KTX 개통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이 관광객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연구원 최훈도 부연구위원은 “철도를 이용한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해안 고속철도 조기 완공과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등 고속철 노선의 신속한 확충이 필요하다”며 “더불어 KTX역 주차장 확충과 복합환승센터 조성, 대중교통 연계방안 마련 등을 통한 이용객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상지 기자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